

<2012년 1월 4일 수요일말씀>

주님의 생명 관리와 구원

본 문 누가복음 8장 22-25절

할렐루야!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평강을 빕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성령님의 뜨거운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 오늘 본문 말씀인 누가복음 8장 22-25절의 내용을 화면으로 보면서 말씀을 듣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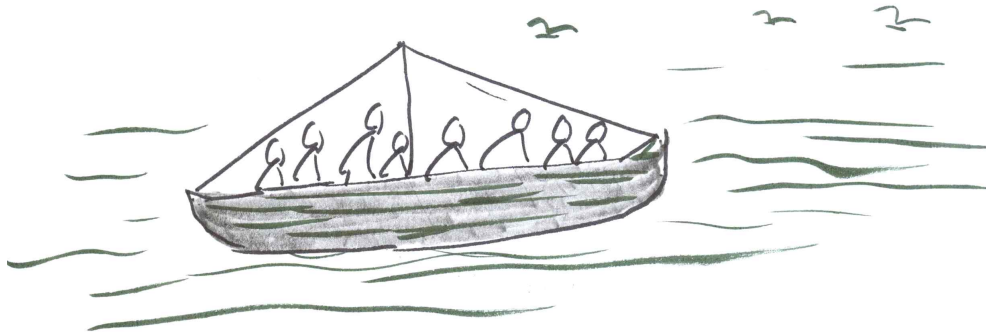
<영상1>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주님께 딱 붙어 함께 역사를 펴며 한 배를 타고 다녔어도 풍랑이 일어나 고통을 받게 되었습니다. 광풍이 내리쳐 배에 물이 가득하여 위태한 상황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하며 주님을 깨웠습니다.



주님도 육신을 가지고 세상에 계실 때 갖은 환난과 죽음의 고통과 위험한 일을 당하시며 각종으로 신경 쓸 일이 많으셨습니다.



주님은 잠을 깨시고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셨습니다. 이에 주님의 말씀으로 바람과 물결이 잔잔하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 믿음을 두지 못했습니다. 믿음이 약했습니다. 주님과 같이 다녔어도 믿음이 없으니 풍랑이 일어났을 때 풍랑을 다스리지 못하고 두려워하며 관리하지 못했습니다. (해당 영상)

제자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기며 “저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니 순종하는가?” 하며 기이히 여겼습니다. 배 안에 탄 제자들은 주님이 메시아인지, 전능하신 구세주인지를 제대로 몰랐습니다. 그러하기에 이 같은 말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의 이름으로 파도를 꾸짖어 물리치고 다스리지 못했습니다. (해당 영상)

<영상1> (설교 내용에 맞춰 해당 영상 제작 / 설교 내용 자막 처리)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에 대해 제대로 알되, 이 시대에 해당되는 대로 제대로 알아야 앞에 닥친 환난도 다스리며 관리하고, 다른 어떤 것들도 생명을 위해 다스리고 관리합니다.

‘영생’은 그리스도를 아는 데서 이루어집니다. ‘믿음’도 그리스도를 아는 데서 시작합니다. 또한 주님이 보낸 자를 온전히 아는 데서 ‘믿음’과 ‘행실’이 일어나 모든 상황을 다스리게 되고, 자기 관리도, 생명 관리도 제대로 하게 됩니다.

그동안 역사를 보면 메시아 예수님을 제대로 몰랐을 때는 개인에게도, 교회에도, 시대에도 생명의 역사가 제대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 시대도 누구든지 주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서는 그에게 생명의 역사가 제대로 일어나지 않고, 환난과 고통과 어려움도 제대로 다스리지 못하여 이기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성삼위 중의 성자이시며, 구세주이시며, 주님의 재림을 위해 먼저 우리 육신을 사망권에서 생명권으로 부활시켜 땅에서 우리의 육을 휴거시키신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주님을 아는 만큼, 그 말씀을 지키고 행하는 만큼 자기 관리가 되고, 남도 관리해 주고, 구원을 받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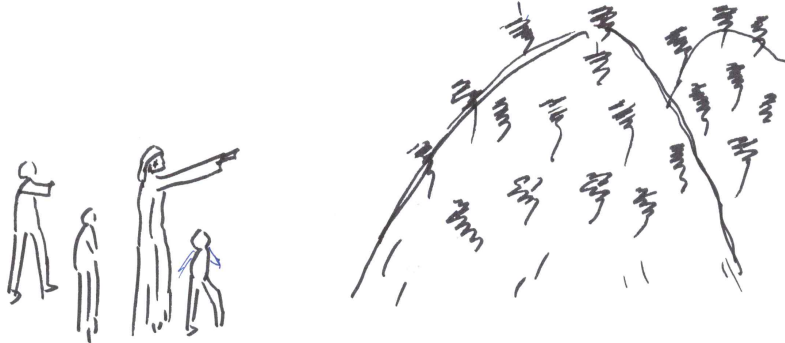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모르면 믿다가 말게 됩니다. 그동안 믿었던 것의 수고가 헛되게 됩니다. 확실히 알고 행하는 자는 주님과 교통하고, 주님이 관리하시니 주님이 돕고 함께하시어 날마다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 말씀같이 예수님은 제자들이 주님께 살려 달라고 매달리니 바람과 물결을 꾸짖어 문제를 해결해 주시며 관리해 주셨습니다. 이 시대의 바람과 물결이란, 사탄과 악한 자들이 행하는 일이며 우리가 겪는 환난을 말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주님을 제대로 알고 믿고 행하여 주 앞에 모든 문제를 놓고 간구하여 주님의 이름으로 해결하기를 바라십니다. 아멘!

(* 화면을 보겠습니다.) <영상2>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믿

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서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리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 할 것이 없으리라.” 하셨습니다(마 17:20).



<영상2> 설교 내용 자막 처리

(* 지금부터 믿음을 가지고 주 앞에 간구하며 행했을 때, 하나님과 예수님의 능력으로 어떤 역사가 일어났는지, 화면을 보면서 말씀을 듣겠습니다.)

<영상3> ① 지난날 선생은 한국 서해 몽산포 해변가에서 시간이 되어 밀려오는 밀물이 못 들어오게 주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날은 1995년 8월 15일 광복절이었습니다. 8월 15일 광복절은 한국이 40년 동안 일본의 식민지로 있다가 해방된 날입니다. 한국과 일본이 화해하자는 뜻에서 한국과 일본 섭리인들이 모여 배구 경기도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대행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청중과 함께 마지막 클라이맥스 행사를 하고 있을 때였는데, 시간이 되어 밀물이 들어오니 행사를 중단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곳에서 나와 다른 곳으로 이동하면 더 이상 행사를 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하루 행사의 결론을 짓는 마지막 순서 하나만 남겨 놓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기도했습니다. 저기 점점 밀려오는 밀물이 멈추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시간은 오후 6시 30분 정도였습니다. 한 시간만 더 지나면 태양이 서쪽으로 넘어가는 때였습니다. 여호수아가 적을 놓고

싸울 때 태양이 멈추게 해 달라고 했듯이, 밀려오는 밀물을 멈추게 해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밀물아. 거기 멈춰라.” 하고, 주님의 역사하심을 믿고서 밀물이 들어오는 곳에 예술단을 횡적으로 세워 놓고 서 있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너희도 같이 기도하자. 그리고 하나님과 주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려라.” 했습니다.

모두 그렇게 행했습니다. 그날 저녁 밀물이 들어오는 시간은 7시 2분으로 그 시각이 되면 스탠드 계단까지 밀물이 차게 되는데, 만조시간을 넘긴 7시 30분까지도 스탠드 앞쪽 30미터 지점까지 물이 멈춰서 움직이지를 앓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때 거기 있었던 1200여 명의 청중이 이 광경을 보고 기이히 여겼습니다. 어떤 이는 말하기를 “어떤 사람이 밀려오는 밀물도 멈추게 하는가?” 했습니다.

결국 그날 마지막 행사를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마쳤습니다. 배구 시합도 했는데, 선생의 편이었던 선수들이 제대로 경기를 못 하고 실수를 많이 하여 4명을 나가게 하고 5명에서 상대편 9명을 상대로 경기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표적으로 이겼습니다.

주님이 일으켜 주신 역사를 카메라와 비디오로 촬영해 놓아 후대도 보게 해 주었습니다. 모두 그 모습을 보기 바랍니다. 보면서 “기이하다. 어떤 사람이기에 밀물도 멈추게 하느냐.” 할 것입니다. <자막1>

②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이집트에서 빠져나올 때 홍해 바다가 갈라져 멈추는 역사가 일어났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복지로 갈 때 태양이 멈춘 것 같은 시간적 표적이 일어났고, 예수님이 육신을 가지고 이스라엘에 오셨을 때는 바람과 파도가 멈추는 표적이 일어났습니다.

이 시대에도 주님의 능력을 믿고 행하니 그와 같이 만물이 순종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섭리역사 가운데 행하신 일을 증거해야 하나님도 주님도 더욱더 역사하십니다. <자막2>

③ 한국 서해 몽산포에서뿐 아니라 말레이시아 포딕슨 해변가에서도 밀물이 멈추는 역사가 한 번 일어났습니다.

때는 2001년 9월이었습니다. 선생은 포딕슨 해변가에 앉아서 제자들을 앞에 놓고 말씀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증거하고 있었습니다. 이날 하나님과 예수님이 함께하시어 밀물이 멈추었다가 2시간이나 늦게 바닷물이 들어왔습니다. 제자들은 멈췄다가 들어오는 밀물을 보고 놀라서 두려워서 가슴이 뛰었다고 증거했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시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함께하신 사건들을 모두 다 기록해 놓았습니다. <자막3>

<영상3> 설교 내용 자막 처리

① 삽화와 실제 사진과 영상 사용하여 하나의 이야기로 영상 제작

<자막1> 설교 내용 핵심을 자막으로 처리

② 모세 때 - 홍해 바다를 가르고 멈춘 역사

여호수아 때 - 여호수아와 그 군대들이 아모리 족속과 싸울 때
시간적 표적이 일어난 역사

예수님 - 예수님이 바다와 물결을 잔잔하게 하신 역사

섭리역사 - 몽산포 밀물이 멈춘 역사

<자막2> 설교 내용을 모두 자막으로 처리

③ 삽화와 실제 사진과 영상을 사용하여 하나의 이야기로 영상 제작

<자막3> 설교 내용을 모두 자막으로 처리

이뿐 아니라 섭리역사 33년 동안 행악자들과 악평자들은 섭리사를 모해하고 음모하며 핍박했습니다. 그러나 기도함으로 다 멸하며 왔습니다. 또한 주님께 기도함으로 태풍, 홍수, 가뭄, 전쟁 등 여러 재앙을 물리치며 왔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본 우리는 시대의 증인들입니다. 고로 증거해야 영도

육도 강하게 되고, 하나님과 예수님이 더욱 역사하시고 형통하게 해 주십니다. 주님이 이같이 다스리시고 생명을 관리하고 전도해 오셨습니다. 따라만 오지 말고, 이같이 하나님과 예수님께 기도하여 표적을 일으키며 관리하는 것입니다.

이제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영상4> 예수님 출현

<예수님 말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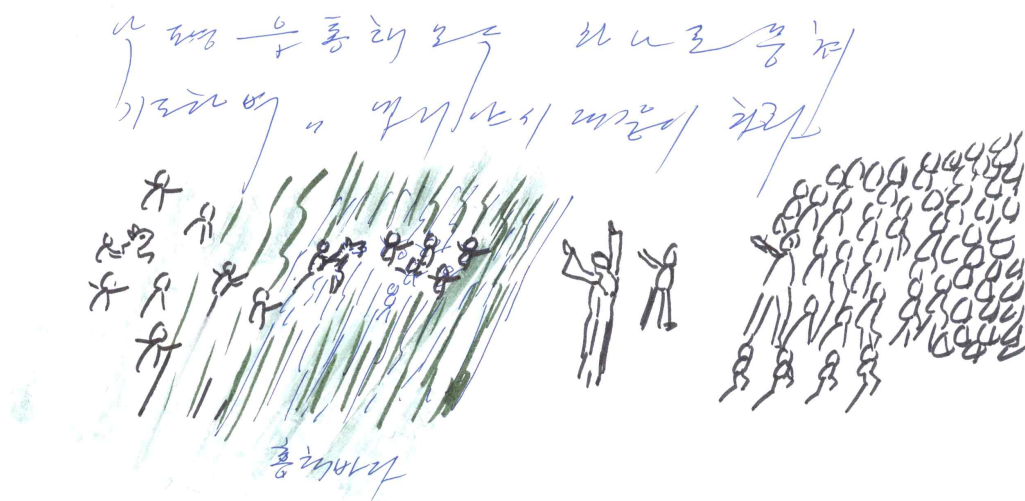
새로운 길을 닦고 새 집을 지을 때 그만큼 어려움이 있듯이, 너희가 2000년이나 기다렸던 나 예수와 함께 내가 보낸 시대 사명자를 맞고 새 역사를 이루며 가니 환난과 고통과 어려움이 있다. 고로 자기를 관리하고 형제들을 관리하며, 근신과 열심으로 나의 신부로 더욱 단장하고 예비하는 자들이 되어라.

사람이 정신 차리지 않을 때는 1년, 3년, 5년, 10년이 가도 못 할 일을 충격 받고 정신 차리면 즉시 해진다. 환난으로 인하여 앞에 있는 산을 넘을 기회가 된다. 고로 더욱 갓추고 기도하여 깨어 있는 신앙을 가져라. 안일한 꿈에서 깨어나고, 태만한 자들은 근신하여 어서 나의 신부로 더욱 단장하여라.

(* 화면을 보면서 주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영상5>

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이집트를 나올 때 이집트 군대가 추격했지만, 그로 인하여 전능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어 홍해 바다를 가르쳐 표적을 일으켜 주셨다. <자막1>

② 이와 같이 전능자 하나님과 나 예수가 너희와 함께한다는 것을 알고, 악평으로 인하여 오히려 모두 하나로 뭉치고 기도하며 굳건하여 모세 때같이, 엘리야 때같이 승리하여라. <자막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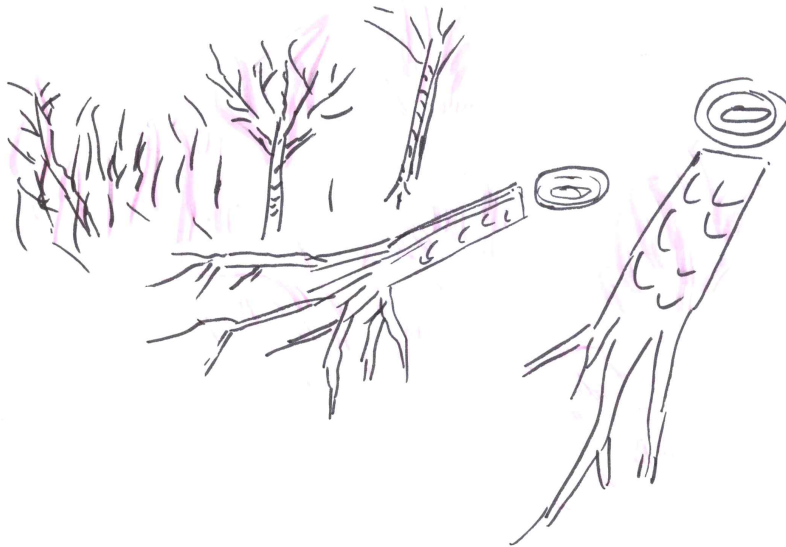


③ 또한 이 시대 나 예수와 내가 보낸 자를 더욱 확실히 알고 깨닫기 바란다. 신앙의 전쟁터에서 나 예수와 시대에 보낸 자에 대해 아는 것이 악한 자 앞에 힘이요, 능력이며, 사탄과 악한 자들을 멸하는 데 무기가 된다. <자막3>

④ 내 아버지도 나 예수도 너희 편이다. 하늘의 천군들이 하나님의 명을 받고 정한 날까지 사탄과 행악자들을 모두 다 멸한다. 이는 예정된 바다. 다만 환난 기간은 그들이 소멸되는 기간에 불과하다. <자막4>



⑤ 그들의 육신은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그 영혼은 이미 사망으로 기울어져 끝난 자도 있다. 그들은 열매 없는 나무가 베임을 받듯이, 가시나무 엉겅퀴가 베임을 받듯이, 이미 베임을 받고 뽑힘을 받아 시들어 가고 있다. <자막5>



<영상5>

- 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이끌고 이집트에서 나올 때
이집트 군대가 추격했으나, 홍해 바다가 갈라졌다. (영화 영상)

<자막1> 설교 내용 자막으로 처리

- ② 섬리인들 하나로 뭉치고 같이 기도하며 이겨 나가는 모습

<자막2> 설교 내용 자막으로 처리

- ③ 선생님 / 악한 자 앞에 힘, 능력 / 사탄 앞에 무기

<자막3> 설교 내용 자막으로 처리

- ④ 초안

<자막4> 설교 내용 자막으로 처리

- ⑤ 육신은 세상에서 살고, 영혼은 사망으로 간 모습 / 그리고 초안

<자막5> 설교 내용 자막으로 처리

그러니 너희는 환난으로 인하여 더 기도하고, 믿음을 굳세게 하고, 육의 삶과 영의 삶을 한 차원 더 높이고, 신부로 단장하는 것도 한 차원 높이며 이 기간을 보내야 한다.

아무리 나 예수가 택한 자라도, 섭리사에서 열심히 하던 자라도 나의 뜻을 벗어나면 마치 뽑힌 나무와 같다. 그동안 자기가 자기를 위해 행한 것들을 자기가 뽑아 버린 것이다. 고로 끝까지 가야 한다. 끝까지 견디는 자와 끝까지 가는 자가 천국에 오게 된다.

(* 다시 화면을 보겠습니다.) <영상6>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는 하나님이 보내신 모세를 잘 믿고 따라가다가,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멀리하니 가다가 말았다. 고로 하나님은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금하시고 광야에서 형벌을 받으며 평생 지옥 같은 삶을 살도록 그냥 놔두셨다. 그것이 형벌이었다. 결국 그 영들도 지옥에 가게 되었다. 자기가 자기를 그같이 되게 한 것이다.

그러나 끝까지 악평하거나 원망하지 않도록 자기 자신을 잘 관리하며 하나님이 보내신 모세의 말에 순종하며 따라간 자들은 가나안 복지에 갔다. 그 시대 그들에게는 가나안 복지가 땅의 천국 같은 곳이었다.

너희는 이 시대 가나안 복지에 온 자들이다. 여호수아 때같이 담대히 의의 싸움을 하여라. 나와 내 아버지의 역사를 위해 선한 싸움을 하여 다스리고 관리하여라.

<영상6> (설교 내용에 맞춰 해당 영상 제작 / 설교 내용 자막 처리)

올해는 철저히 자기 관리를 하면서 더욱 온전해지는 해이며, 그 터전 위에 생명들을 내게 불러오는 때다. 관리하지 않으면 자신도, 형제도 존재하지 못한다. 섭리사를 따라오다가 세상으로 나가고 신앙이 파선된 자들은 자기를 부지런히 관리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악평자들은 나의 역사에 들어오기가 어렵다. 그들에게는 형벌 기간이 있다.

어떤 자들은 형제는 관리하여 구원받게 해 놓고, 자기 관리를 못 하여 세상으로 나가는 자들이 있다. 모두 자기 문제를 놓고 매일 지혜롭게 나 예수의 뜻대로 관리해야 된다. 민족도, 가정도, 개인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철저히 관리해야 된다. 관리해 주는 만큼 존재한다.

(* 화면을 보겠습니다.) <영상7> 자기 몸의 건강도 매일 스스로 관리하여라. 자기 몸과 자기 신앙은 자기가 책임지고 미리부터 관리해야 한다. 또한 안전 문제도 스스로 관리하여 안전하게 자신을 지켜야 한다. 또한 자기 신앙도 흠과 틈이 없도록 매일 근신하고 매시간 행하면서, 조심하면서 자기를 관리해야 된다.

<영상7> 설교 내용 자막 처리

운동하고, 스스로 체크하고, 병원에 가면서 건강관리 하는 모습

안전사고 나지 않게 스스로 조심하며 관리하는 모습

신앙도 매일 근신하고 행하면서 예수님과 같이 관리하는 모습

관리할 때는 첫째, 기도해야 된다. 항상 기도해야 자기 생각에서 관리할 것이 무엇인지 잊어버리지 않게 되어 매사에 자기가 할 관리를 하여 존재하게 된다. 정신 차리고 신경 쓰는 대로 관리하게 된다.

둘째, 나 예수의 뜻대로 관리하여 지혜, 사랑, 진리, 순리, 온전함으로 관리해야 된다.

셋째, 생명을 관리할 때는 무조건 옆에서 관리만 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생명 스스로 관리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어 그가 관리법을 배우고 알아서 자기를 관리하게 해야 된다. 부담스러운 관리는 부담을 느끼게 되니, 본인 스스로 할 것까지 옆에서 다 해 줄 필요는 없다.

넷째, 또한 자기가 생명을 관리할 때 자기가 관리하기 힘든 한계를 맞기 전에 다른 사람을 통해서 관리되게 해 줘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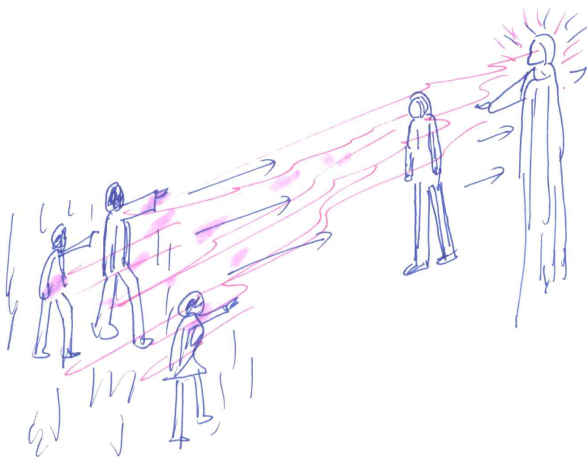
다섯째, 육적인 관리만으로는 그 영과 정신이 제대로 성장하지 못하니 진리와 은혜로 관리하면서 영적으로 온전히 관리해야 된다.

(* 화면을 보겠습니다.) <영상8> ① 나 예수가 항상 너희 환난과 핍박과 악평과 풍랑들을 다스리고 관리하니 염려를 내게 맡기고, 나 예수를 온전히 알고 사랑하여라. <자막1>

② 너희는 구원을 받았으니 세상 어떤 유혹에도 빠지지 말고, 호리라도 악인들의 꾀에 빠지지 말고, 악평자의 어떤 말도 듣지 말고 불신하여라. 악평을 듣거나 믿으면 육신을 따라 자기 영혼도 악하게 되어 악에 속한 자가 되고, 결국 악인의 심판의 날에 악인들과 같이 멸망을 받게 된다. <자막2>

③ 악평자들은 자기 책임을 못 하여 악한 함정에 빠져 놓고, 죄 없는 자들까지 그 함정으로 끌어들이나. 악평하는 자들은 항상 음모하는 말을 하고 갖은 거짓된 말을 한다. 그 말을 듣고 따르는 자는 그 영도 육도 나 예수의 심판의 날에 멸망을 당한다. <자막3>

④ 나 예수가 보낸 자와 그 사명자가 자기의 육같이 쓰는 사명자를 비방하고 악평하는 자는 나 예수를 비방하고 악평한 자로서 나 예수가 그 행위대로 그 육도 영도 심판하리라. 생명을 사냥한 죄가 너무도 크기 때문이다. <자막4>



<영상8>

① 예수님과 딱 붙어 있는 우리들



환난 핍박 시험 악평 풍랑 (다스리는 모습)

<자막1> 설교 내용 자막으로 처리

② 악평자들과 악평을 받은 자들의 영이 사망에 처해 있는 모습

<자막2> 설교 내용 자막으로 처리

③ 함정에 빠진 자가 밖에 있는 자를 유혹하여 함정으로 빠뜨린다.

<자막3> 설교 내용 자막으로 처리

④ 초안

<자막4> 설교 내용 자막으로 처리

그들은 내게 “주여! 주여!” 하면서도 입에는 악이 가득하며 거짓된 자들이다. 그들 중에는 이미 나의 심판을 받고 형벌에 처한 자도 있다. 너희는 육신이 죽거나 어떤 재해를 받았을 때만 심판받은 것으로 보느냐. 영혼이 심판받아 사망으로 간 것을 영의 세계를 못 보는 자는 모른다. 영혼을 심판하여 멸하는 자를 두려워하라.

악인의 말에 한 마디도 응하지 말고, 사탄의 유혹에 들지 말아라. 지금은 때가 다 되어 회개하고 돌이킬 시간이 없다. 고로 섭리사에서 악한 말을 듣고 뒤돌아보는 자는 롯의 아내와 같은 입장이 되어, 구원받은 자라도 구원길을 따라오다가 그 영이 멸망을 받게 된다.

나 예수가 이같이 말하였으니 하지 말라는 것을 행하면 죄요, 그는 악한 자가 되는 것이다. 법을 주었을 때 지키는 것이 자기 관리다. 내가 말했는데도 내 말을 지키지 않는 자는 누구나 죄인이 되고 악인이 되어 사망권에 처하게 된다. 오직 나의 시대 말씀을 듣고 끝까지 따라와라.

(* 화면을 보겠습니다.) <영상9> 재앙은 정한 날 하루 만에 홀연히 내린다. 그 멸망은 순간이다. 지난날 지구 세상에 재앙이 내린 지역들을 보아라. 재앙의 지역에 있었던 자들이 그날에 그같이 될 줄 알았겠느냐. 고로 평소에 자기를 관리하여 악의 심판을 받지 말아라.

<영상9>

재앙이 오니 순식간에 다른 세상이 된 모습

→ 먼저 화면이 짙어 지나간다.

그리고 설교 내용을 자막으로 보여 주면서 해당 영상 보여 준다.

오직 나 예수와 함께 관리다. 이 시대 내가 보낸 사명자와 함께 관리다. 자기가 살아야 생명들도 전도하게 된다. 자신이 온전히 살아 힘 있게 뛰어야 많은 생명들을 전도하고 관리하게 된다.

섭리사 전체는 나 예수의 말이 나갔으니 모두 전심을 다해 관리하여라. 관리하지 못하면 7년, 10년, 20년 동안 구원길을 따라와 수고한 것이 깨져 버린다. 고로 끝까지 견디고 행하라고 한 것이다. 기도함으로, 담대함으로, 근신함으로 너희 자신을 지키고 나의 말을 행함으로 더욱 굳건해지기를 바란다.

화면을 보면서 지난날을 돌아보자. <영상10>

① 1998년에 너희 선생이 월명동에 있을 때다. 너희 선생은 매년 봄과 가을에 체육 행사를 통하여 특별한 제단을 쌓았다. 곧 하나님 역사 앞에 부름 받은 너희들이 건강한 모습을 하나님께 보이고, 젊음의 패기와 활기찬 모습을 나타내게 했는데, 그해 봄 체전(1998년 5월 3일) 때 아침까지 비가 내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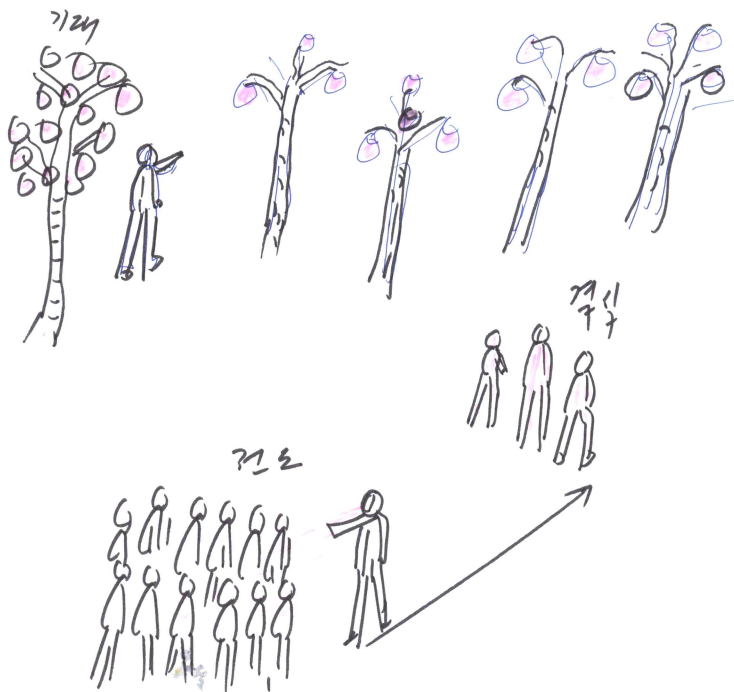
그때 행사 날을 미리 정해 놓고 영광의 대행사를 하려는데, 그날 너무 많은 비가 내려 운동장이 다 잠겼다. 청중은 월명동으로 밀려오는데, 비는 하염없이 쏟아졌다. 너희 선생은 즉시 운동장으로 나와서 물을 퍼내고, 대형 스펀지를 깔아서 물을 흡수 시키며 운동장을 말렸고, 여전히 질퍽한 곳에는 마사토를 깔아서 기어이 행사를 하고야 말았다.

행사하는 날 비가 왔다고 해서 ‘하필이면 왜 오늘 비가 오지? 하나님이 비를 주관하시는데...’ 하고 야속하게 생각하고 안 했으면, 그때 밀려온 청중들이 실망하고, 전반기 마지막으로 하나님과 나 예수에게 영광 돌리는 행사를 하지 못하고 역사에 부끄럽게 남지 않았겠느냐.

결국 그날 포기하지 않고 야속하게 생각하지 않고 행하여 비도 멈추고 화창한 날이 되어 하나님과 나 예수에게 영광 돌리는 대행사를 하여 보람과 기쁨을 얻게 되었다. <자막1>

② 모두 보고 배우고 이같이 행하여 여름 수련회 때가 되면 정한 날 비가 와도 하나님의 행사를 진행하여 마음 표적도 일어나고, 행실 표적도 일어나고, 날씨 표적도 일어나고, 은혜의 표적도 일어나게 되었다. 그와 같이 모두 행하면서 관리하고 다스려 나가는 것이다. <자막2>

③ 농부는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농사를 짓는다. 비바람을 원망하고 농사를 안 지으면 먹고 살지 못한다. 전도도 생각보다 안 돼도 하는 것이다. 과수원지기가 과일나무를 가꾸고 한 나무에 100개의 열매가 열기를 기대했는데, 기대에 어긋나 20개만 열었어도 과수원 농사를 짓는 것이다. 농사를 안 지으면 그나마도 얻지 못하게 된다. <자막3>



<영상10>

① 실제 영상과 사진과 삽화를 이용하여 영상 제작

<자막1> 설교 내용 자막으로 처리

② 수련회 때 비가 쏟아졌지만 그대로 진행하는 모습 (비디오 영상)

<자막2> 설교 내용 자막으로 처리

③ 초안

<자막3> 설교 내용 자막으로 처리

(* 주님께서 오늘의 마지막 메시지를 주시며 인사하십니다. 화면을 보겠습니다.) <영상11> 전능자 내 아버지께서 전쟁의 날에 다윗을 보호하시고, 또 너희 선생을 전쟁터에서 보호하고, 나의 섭리역사를 지금까지 보호하고 관리했듯이 나는 너희에게 늘 행할 방법과 방향을 주고 너희를 관리하며 악한 자들에게서 지킨다. 그 대신 너희는 열심을 다해 충성하고 세상에 한눈팔지 말고 나의 신부로서 더욱 온전히 예비하여 나와 같이 행하자. <자막1>

너희를 관리하고 너희와 함께 생명을 구원하는 주 예수다. 샬롬!

<자막2>

<영상11>

① 전쟁의 날 다윗을 보호하신 하나님,

전쟁의 날 선생님을 보호하신 하나님

지금까지 섭리사를 보호하신 하나님

부지런히 열심히 뛰고 달리는 섭리사 사람들의 모습

<자막1> 설교 내용 자막으로 처리

② 예수님 나오시면서 인사 (설교자가 말하게 한다.)

<자막2> 설교 내용 자막으로 처리